

녹두꽃

2024

겨울

54



표지설명

1893년 11월 전라도 고부에서 작성된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모티프로 디자인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불씨였던 '사발통문' 주변에 굵직한 점과 선을 넣어 공간적인 의미를 확장하고, 시간적인 의미를 2024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확장하였다.



『녹두꽃』을 전자책으로 만나 보세요.

구독신청
☎ 063 530 9416

차례

녹두칼럼 왕기석 전라북도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	02
포토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한마당	04
뉴스초점 기념공원, 불멸 바람길 -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 선정(選定)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개관식	08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회, 자문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유족등록 통지서 전달식 2023 동학농민혁명 유튜브 영상 공모전 한국기자협회 기자단 초청 랩 투어(FAM Tour)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스마트 뮤지엄 월 시스템 구축 기념재단, 정읍시북부노인회관 업무협약(MOU) 체결 녹두장군캠핑장, 가을밤 별빛 버스킹(Busking) 기념재단 브로슈어, 홍보도서 발간	09
기획연재 그림에 담긴 갑오년의 이야기 4	15
참여자 유족인터뷰 한우희 참여자 한달문의 손자	20
전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전시실	26
인권과 평화 Mona(모나) 조국(祖國) 캄보디아 독립기념일에 방문한 기념공원 유민우 외 1 대학생 눈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28
연대기관 대담 조성구 4·19혁명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무총장	34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소식 『동학농민혁명 연구』(창간호),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발간 부안군·정읍시·고창군·군산시·장흥군 연계 학술대회	40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단체 행사	44
교육·체험, 방문단체 녹두꽃, 다시 피다	50
2024년 교육·체험 안내 박물관, 기념공원, 기념관 프로그램	56

통권 54호 발행일 2024년 1월 1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 530 9400 팩스 063 538 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편집디자인·제작 두인

천명^{天命}, 하늘의 명령

時來天地皆同力

때가 되니 하늘과 땅이 하나되어 힘을 합하더니

運去英雄不自謀

운이 다하니 영웅인들 어찌해볼 도리가 없구나

愛民正義我無失

백성과 정의를 위한 나의 일이 무슨 허물이다나

愛國丹心誰有知

나라 위한 붉은 마음 그 누구 있어 알아주랴

전봉준 장군의 「절명가」로 알려진 한시(漢詩)다. 읽을수록 가슴이 저리고 아리다. 19세기 말, 안으로는 세도정치라는 기형적인 정치체제 아래 탐관오리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신음하고, 밖으로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떨쳐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다. 그 최고 지도자가 녹두장군 전봉준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4년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학의 후예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지금은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겨울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배한 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에 빠져들었고, 해방 이후 극심한 민족

내부의 좌우대립, 민족분단,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진 극심한 국내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반란사건'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다행스럽게 1994년 10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이 재정립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학계의 노력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 단체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런 노력에 문화예술계도 힘을 합했는데, 그 하나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음악극(창무극) 「천명」을 들 수 있다.

음악극 「천명」은 1994년 예술의 전당에서 초연 후 2000년 1월과 2월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한승헌) 주최로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단 등이 출연하는 대작으로 리메이크되어 서울 국립중앙극장,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전북 전주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등에서 공연되었다. 나이가 동학농민혁명 110주년이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다시 공연되었고, 2017년 5월 전라북도 지원으로 전북도립국악원과 정읍시립국악단 단원 등 200여 명이 출연하는 대규모 공연이 동학농민혁명 황토현전승일에 맞춰 성대하게 펼쳐졌다. 같은

왕기석
전라북도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

해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으로 초청되어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 자리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 무대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정읍 시 지원으로 창작관소리연구원에서 제작한 창작관 소리 「녹두장군 전봉준가」에도 참여하여 정읍, 전주, 서울 등지에서 성황리에 공연하기도 하였다.

소리꾼인 나는 무슨 인연인지 이순신, 전봉준, 백범 김구, 안중근, 윤봉길 등 역사인물을 다룬 공연작품 외 200여 편에서 주역으로 참여하였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나는 이래저래 많이도 죽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서른한 살에 주역을 맡았던 음악극 「천명」에서 맡은 녹두장군 전봉준 역(役)이다. 그때부터 나에게 동학농민혁명은 일종의 숙명이자 운명으로 자리하였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나의 판소리 인생의 일부이자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고 천명하였던 갑오년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가슴에 새겼고,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때 갑오선열,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나라는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였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왔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다. 1894년 갑오년, 시린 겨울산하에 선혈을 뿌리며

쓰러져 간 동학농민군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만민이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2024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새해를 맞으며 나는 시린 겨울하늘을 우리리보며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거룩한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긴다.



왕기석 : 전북 정읍 출생.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및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 졸업. 국립창극단 지도위원, 정읍시립국악단장, 국립민속국악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4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현재 (사)전라북도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한마당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100여 명이 참여한 ‘유족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와 유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첫째 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추모관 참배를 시작으로 박물관을 돌아보았다. 이어서 전통공연을 관람한 후 체험 프로그램과 유족통지서 전달식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울림의 기둥, 불멸 바람길(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등의 기념시설과 전봉준 고택 등 정읍지역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2



3



4



5



6



7

1. 전통민속공연(줄타기)
- 2~5. 탈춤과 줄타기가 어우러진 전통민속공연
6. 체험 프로그램(전통주 만들기)
7. 체험 프로그램(반려 화분 만들기)



1



2



3



4



5



6

- 1~2. 유족 통지서 전달식
- 3~4. 공연관람(마술쇼)
- 5~6.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 7. 기념재단 소개
- 8.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투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불멸 바람길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 선정(選定)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불멸 바람길(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 100'(지역 문화매력 100선)으로 선정되었다. '로컬 10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과 2024년 2년에 걸쳐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국내외 홍보를 추진한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개관식



2023년 11월 1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충북 청주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세계 최초 유네스코 공식 기구로 출범한 센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관식에서 '세계기록유산(MoW) 사업의 현재'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세계기록유산 국제 콘퍼런스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하여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 및 관련 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한 우리나라는 아시아 1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4차 이사회



2023년 12월 5일(화) 오후 2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회의실에서 5기 제4차 이사회가 열렸다. 먼저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의 건과 기념재단 직제규정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 후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추진 현황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신순철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정향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代) 문화체육관광부 이수원 전통문화과장), 이재운(전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위원장), 심형기(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정선원(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위의환(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천진기(전 국립민속박물관장), 왕기석(전 국립민속국악원장), 박흥규(기념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3차 자문위원회



2023년 12월 1일(금) 오후 2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회의실에서 5기 제3차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검토안건으로 상정된 동학농민혁명재단 2024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직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였다. 이어서 2024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및 방송 홍보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폭넓은 자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신순철 위원장(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손주갑(동학농민유족회 대의원), 이정신 (장흥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김용달(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김봉승(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명성(전 전주KBS 보도국장), 전성진(전 전주MBC 대표이사, 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이기전(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광철(전 국회의원, 녹두꽃 시민합창단 단장), 김경민(백제예술대 뮤지컬과 겸임교수), 김현승(변호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박흥규(기념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10월 1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제17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신순철(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심의위원 구선희(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김춘성(천도교 교서편찬위원회)·배향섭(성균관대학교 교수)·주영채(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정향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등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의 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청 및 직권등록 32건을 심의하여 참여자 19명과 유족 208명을 인정하였다. 현재까지 등록된 참여자는 3,785명이며, 유족은 13,175명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족등록 통지서 전달식



2023년 10월 2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유족등록 통지서 전달식을 가졌다. 17차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등록된 유족을 축하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등록된 유족 26명이 참석하였다.

2023 동학농민혁명 유튜브 영상 공모전



학생부 대상 — 김태서
(광주광역시)



일반부 대상 — 박선형
(서울시)



학생부 최우수상 — 한솔 크리에이터 팀
(전북 정읍시)



일반부 최우수상 — 민선영 팀
(서울시)



특별상(지도 교사상) — 박형철
(전북 정읍시 한솔초등학교)



특별상(지도 교사상) — 전진영
(전북 정읍시 태인고등학교)

2023년 6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을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68점의 영상 작품이 출품되었고,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심사를 진행하여 총 1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심사결과 일반부 대상에는 박선형(서울시)의 '아들과 함께하는 동학여행', 학생부 대상에는 김태서(광주광역시 은빛 초등학교 2학년)의 '(속보)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모두 13명을 시상하였다. 그 내역은 대상 2작품, 최우수상 2작품, 우수상 2작품, 장려상 4작품으로 모두 10명이고, 학생부 출품작을 지도한 지도교사 3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하였다. 수상작품과 출품작품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기자단 초청 팸 투어(FAM Tour)



2023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읍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협력사업으로 한국기자협회 전국 시·도 기자협회 소속 40여 명의 기자단을 초청하여 동학농민혁명공원 홍보 팸 투어를 가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특강'에 이어 기념공원 내 추모관과 전시관, 울림의 기둥, 불멸 바람길(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을 비롯하여 전봉준 장군 고택, 만석보 터 등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스마트 뮤지엄 월 시스템 구축



2023년 11월 20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로비에 최첨단 스마트 뮤지엄 월 시스템(벽에 설치된 대형 화면 검색기)을 설치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손가락 터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소장유물이나 여러 관련 이미지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문객들의 흥미 유발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념재단, 정읍시북부노인회관 업무협약(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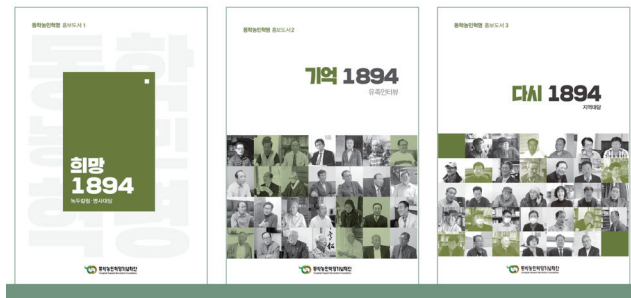
2023년 10월 2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두 기관이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재단법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읍시 신태음에 자리한 노인복지관과 기념재단은 '옛이야기의 전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은 물론이고 지역에 깃든 동학농민혁명 관련 옛이야기 발굴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하였다.

기념재단 브로슈어, 홍보도서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브로슈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재단 설립 목적 및 활동 내용 등을 담은 브로슈어(안내책자)를 제작·발행하였다.



동학농민혁명 홍보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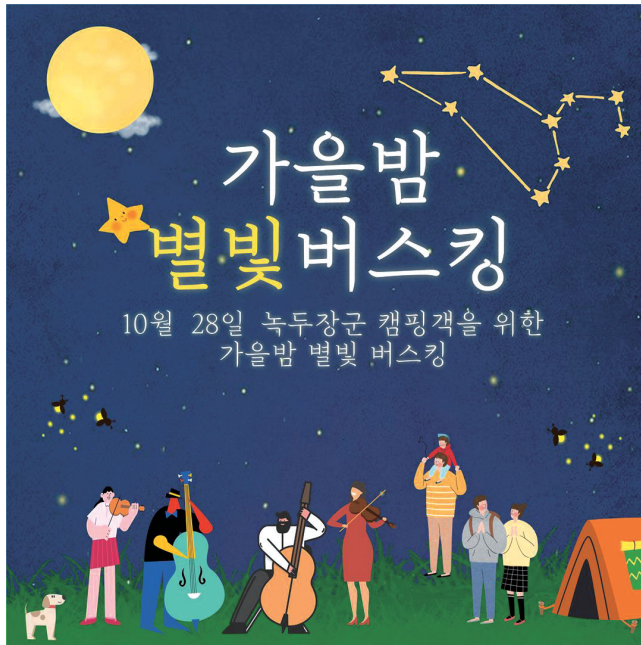
2010년 기념재단 창립 때부터 계간(季刊)으로 발행해 온 소식지 『녹두꽃』에 게재된 원고를 재구성하여 홍보도서 (전 3권)을 제작·발행하였다.

제1권 『희망 1894』: 소식지에 게재된 「녹두칼럼」, 「명사대담」

제2권 『기억 1894』: 소식지에 게재된 「유족인터뷰」

제3권 『다시 1894』: 소식지에 게재된 「지역대담」

녹두장군캠핑장, 가을밤 별빛 버스킹(Busking)



2023년 10월 28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녹두장군캠핑장에서 '가을밤 별빛 버스킹' 공연이 열렸다. 이날 버스킹은 '이야기가 있는 현악 4중주 클래식'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객과 녹두장군캠핑장 이용객이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였다. 2023년 4월 5일 개장한 녹두장군캠핑장은 오토캠핑, 오토카라반, 일반캠핑 등 총 51면을 갖추고 있다. 개장 이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캠핑장은 특히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에게 각광을 받아 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녹두장군캠핑장 이용예약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를 통해 가능하다.

* 버스킹(Busking): 사람들이 이동하는 야외(길거리) 공연

그림에 담긴 갑오년 이야기 4

그림·박홍규 / 글·문병학

‘그림에 담긴 갑오년 이야기’ 코너를 신설하여 『녹두꽃』 통권 51호부터 54호까지 네 번에 걸쳐 박홍규 화가의 작품을 게재한다.

눈보라

눈보라 눈보라

눈보라 휘몰아치는 겨울 산하

가보세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리



눈보라, 2021, 31×61cm, 한지에 수묵채색

박홍규

화가, 1959년 전북 부안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였으며, 전북민족미술인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전 「들에서 여의도까지」(1999, 우진문화공간, 전주), 「겨울 여의도」(2011, 서신갤러리, 전주), 「新농가월령도」(2012, 서신갤러리, 전주)를 가졌으며, 2인전(박홍규·이기홍)으로 「지금, 여기, 리얼리즘」(2012, 차라리언더바, 전북 전주)이 있다.

초대전으로는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전_만화 부문」(2010,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주), 「빈집의 꿈 국회초대전」(2013, 국회의원회관), 「피노리 가는 길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판화전」(2014, 서신갤러리, 전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기념전」(2015, 전남 장흥군), 「혁명은 순정이다」(2021, 오월미술관, 광주광역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2021~22, 신동업문화관, 충남 부여) 등이 있다.

이밖에도 「힘전」, 「동북아와 제3세계미술전」, 「쌀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피노리 가는 길, 2014, 45×105cm, 목판화

우금티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
 논산 황화대, 원평 구미란, 태인 성황산
 후퇴를 거듭하면서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았다.

1894년 12월 23일(음력 11. 27.)

동학농민군 주력 부대는 태인 성황산 전투에서도 패배하였다.

호남 농민군은 정읍 광주 나주 무안 장흥으로 남진(南進)하였고

호서경상(湖西慶尙) 농민군은 임실 장수 진산 청산 옥천 보은으로 북진(北進)하였다.

피노리 피노리... 전봉준 장군은 순창 피노리로

김개남 장군은 태인으로, 손화중 장군은 무장으로 몸을 피했다.



탐진강 전야, 2021, 34×94cm, 한지에 수묵채색

1894년 12월 31일(음력 12. 5.)
서남해안 장흥까지 후퇴한 동학농민군은
이방언 장군의 지휘 아래 장흥을 점령하였다.

1895년 1월 10일(음력 1894. 12. 15.)
석대들 전투,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관군 등과 혈전을 벌였다.
전투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쓰러졌다. 석대들녘에 농민군의 피가 흥건하였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2021, 100×200cm, 목판화

땅끝 해남으로 진도로 밀린 동학농민군은
서남해안 섬으로 섬으로 섬으로 몸을 피하였다.



동학농민혁명군 장흥부 덕도 탈출도, 2015, 92x210cm, 목판화

한편, 북진(北進)한 호서경상 동학농민군은
충북 보은 북실(종곡리 鐘谷里)에서 일본군과 관군 등과 혈전을 벌였다.

동학농민군 주력부대가 해산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색출과 학살이 이어졌다.

일본군과 관군의 학살 만행을 피해
금산과 진산 동학농민군 25명이 대둔산으로 숨어들어
형제바위의 험준한 지형과 산세를 이용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



대둔산의 아침, 2021, 94x58cm, 한지에 수묵채색

1895년 2월 18일(음력 1. 24.)
일본군과 관군이 대둔산 형제바위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다.
결사항전(決死抗戰), 소년 한 명을 제외한
24명의 동학농민군이 모두 전사하였다.

.....

고향을 떠나 바다로 섬으로 들로 산으로 ...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동학농민군은 그렇게 떠돌아다녔다.



밤에 내리는 눈송이, 2021, 45x65cm, 한지에 수묵채색

눈보라
 눈보라 눈보라
 눈보라 휘몰아치는 조선의 겨울 산하

흰 어둠이여!
 백설(白雪)에 뒤덮인 삼천리 금수강산
 어둠의 역사를 헤치고 새 역사의 희망으로 살아오라

눈보라치는, 얼어붙은 거울을 떨치고
 새봄 새봄이 오면 백설 위에 뿌려진 붉은 피
 꽃으로 피리라 삼천리 방방곡곡 봄꽃으로 눈부시리라

꽃이여, 녹두꽃이여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이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한달문의 손자 한우회

일시 2023. 11. 21(화) 11:00 ~

장소 전남 나주시 봉황면 용전리 한우회 님 댁

문 이번 호 『녹두꽃』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한달문(韓達文 1859~1895) 님의 손자 한우회(韓宇會)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나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참여자 한 달자 문자 님의 손자 한우회입니다. 저는 1936년 화순군 도곡면에서 태어나서 여섯 살 무렵에 나주군 봉황면 지금 이 마을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8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태어난 건 1936년인데 호적이 2년 뒤에 등록되어 주민등록상에는 1938년으로 되어 있어요.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확인되고, 저도 유족으로 등록되어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활동에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니 몸도 무겁고 해서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해 9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때는 각 광역 자치단체와 시·군 지자체에서 참여자 신청을 받는 업무를 보기도 했는데, 그 무렵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부님과 선생님이 참여자 그리고 유족으로 등록된 것이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뒤에 제 큰집에 한승구라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저의 조부님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에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를 비롯해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관계자 분들이 이곳 나주에 내려와서 큰집 식구들은 물론이고, 저에게 조부님에 대해 묻는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 족보도 살펴보고, 제 백부님이 남긴 서책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에 참여자로 등록이 확정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그 뒤에 참여자 유족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한 달자 문자 조부님의 자손은 많았나요?

답 아니에요. 아들 둘을 두셨어요. 제 아버지와 아버님의 형님 이렇게 두 형제를 두었어요. 저의 백부(伯父)님은 용자 수자를 쓰셨고, 제 아버님은 기(起)자 동(東)자를 쓰셨어요. 저의 아버지는 삼 형제를 낳으셨는데, 백부님은 손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백부님께서 글에 능하셔서 글을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서책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문 그럼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서에는 선생님 형제분들도 함께 유족으로 신청하였고, 등록도 그렇게 되었겠네요?

답 맞아요. 그랬어요. 제 큰집 조카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저의 조부님을 참여자로 올렸고, 유족으로 저와 저의 바로 밑 동생인 한만효(韓萬孝), 그리고 그 아래 막넛 동생 한봉용(韓鳳鏞) 이렇게 세 명을

올렸지요. 그때가 벌써 이십 년쯤 지난 때라서 그 사이에 바로 아래 동생 한만효는 죽었고, 막넛 동생 한봉용은 지금 나주시 다도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문 네,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얘기는 언제, 어떤 분에게 들으셨는지요?

답 동학농민혁명이 지금이야 혁명이라고 내놓고 말하게 되었지만, 얼마 전에만 해도 반란군이라서 말도 꺼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니께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부님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몰라요. 하여간 기억을 더듬어보면 제 조부님은 저의 백부님과 아버님 이렇게 아들 둘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부님은 글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손이 없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우리 집안 족보를 비롯해서 여러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서들 중에는 백부님이 쓰신 서책들도 몇 권이 있었어요. 하여간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쉰 살 무렵 그러니까 한 30년쯤 전에 저의 큰집에서 족보를 보겠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족보랑 서책들을 큰집에 보냈어요. 그때 족보는 보냈지만 백부님이 남긴 서책 몇 권은 넘겨주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백부님 서책 중 한 권에서 중간에 끼어 있던 옥중 편지가 발견된 것이지요.

문 네, 그랬군요. 백부님 서책에 끼어있던 옥중편지를 발견한 것이 언제쯤인지 기억하시나요?

답 그게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통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그 옥중편지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한동안 세상에 그 편지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어쩐지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라남도 지정 무슨 문화재로 올렸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학예사가 전화를 걸어왔고, 여기를 찾아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실에서 전시를 한다고 옥중편지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러라고 하였고, 그 뒤에 그 옥중편지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없어져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신경도 많이 써야하고요. 그래서 정부의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증을 한 것이지요.

문 네, 조부님에 대한 얘기를 좀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조부님에 대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제가 조부님에 대해 아버님이나 어머니께 들은 얘기는 거의 없어요. 특히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조부님에 대해 부모님께 들은 얘기는 제 조부님이 어릴 때부터 아주 영민하셔서 젊은 나이에 무관 벼슬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절충장군인가 뭔가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의 아버지께서 그 교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어요. 하여간 훌륭한 무관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외에 제가 부모님에게서 조부모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어요.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서 나주지역에서 대장을 하셨다는 얘기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해서 지역의 향토사학자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조부님이 나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 아래 영암과 강진, 장흥 등 곳곳을 누비며 활동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1894년 12월에 영암 어디...? 라고 했는데... 하여간 영암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그때 조부님이 붙잡혀 나주로 이송되어 감옥에 갇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나주감옥으로 잡혀 들어간 뒤에 고문을 심하게 받았답니다. 이 무렵에 조부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증조모님에게 쓴 편지가 그 옥중편지인 거 같아요. 하여간 조부님은 어찌어찌해서 1895년 봄에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풀려난 지 이틀 만에 옥중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 장독(杖毒)으로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디엔가 기록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조부님의 이름이 족보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네, 조부님은 호적상 기록에는 한영우이고, 족보에는 한치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조부님의 자는 치화, 달문이고 호는 묵헌입니다. 그리고 조부님이 돌아가신 후 족보에 동학농민군 대장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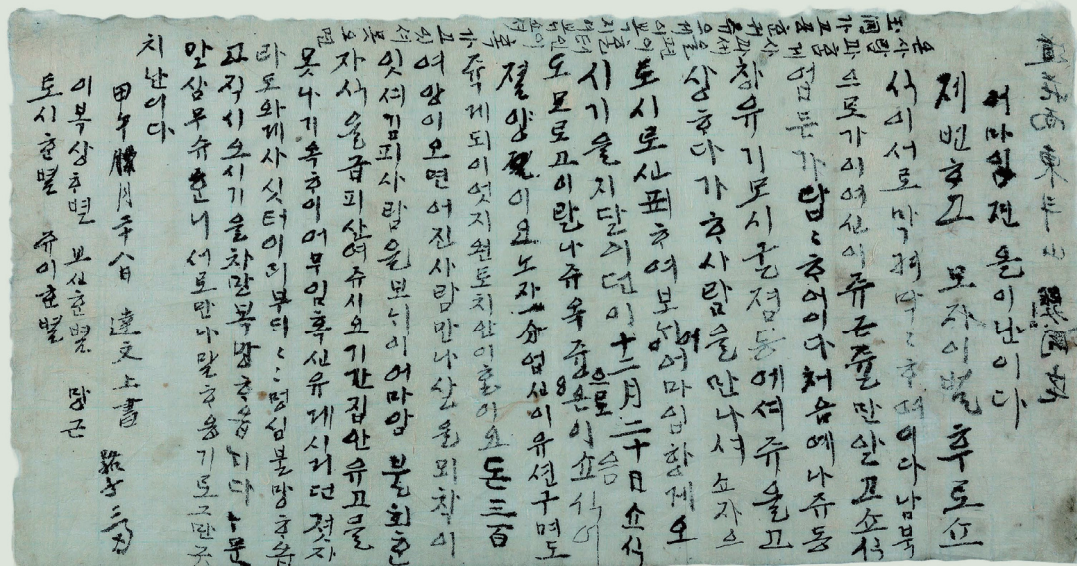
문 네, 선생님께서 ‘옥중편지’라고 말씀하시는 조부님의 편지가 지난해인 2022년 2월 10일 국가등록 문화재 제825호로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옥중편지가 ‘동학농민군 편지(한달문 편지)’라는 정식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지난 2023년 5월 2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조부님이 남긴 옥중편지가 조부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선생님의 증조모님에게 옥에서 보내달라고 구원을 요청한 내용인데... 이 편지의 내용처럼 증조모님이 돈 300냥 등을 보냈기 때문에 조부님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답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어요. 조부님이 남긴 편지 내용대로 저의 증조모님이 돈을 보내서 감옥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듣기로는 당시의 집안 형편이 그런 정도의 돈은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그렇지만 편지 내용대로 증조모님이 돈을 보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부님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를 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정

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증조모님이 돈을 보내서 출옥한 것이 아니라 나주감옥에서 조부님을 워낙 모질게 고문해서 죽기 직전에 이르자 송장 치우기 싫어서 내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을 거 같아요.

문 네, 생각할수록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러 이곳에 오기 전에 미리 조부님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전남동학농민혁명사』(이상식·박맹수·홍영기 공저, 1996.)와 『동학농민혁명 인물사료탐구』(최현식, 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004.), 『전라도소회동도성책(전)』(全羅道所獲東徒成册_全)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들 기록에 따르면 조부님이 1894년 9월부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체포·투옥되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라든가 지역의 향토사 연구자 이런 분들이 선생님을 많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여 찾아온 사람들 중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지요?

답 네, 저와 출생 연도가 비슷했던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도 생각나고, 이상식 교수님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리고 나주시 문화원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정읍문화원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더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또 큰집 조카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 족보도 살펴보고 백부님이 남긴 서책들도 살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묻고 그랬지요.



동학농민군 한달문의 편지

어머님께 올라나이다.

제번하고 모자 이별 후로 소식이 서로 막혀 막막하였습니다.

남북으로 가셨으니 죽은 줄만 알고 소식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처음에 나주 동창 유기모 시굴점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조자의 토시로 신표를 하여 보내어 어머니 함께 오시길 기다렸더니,

12월 20일 소식도 모르고 이날 나주옥으로 오니 소식이 끊어지고 노자 한 폰 없으니

우선 굶어죽게 되니 어찌 원통치 아니 하리오. 돈 300여 냥이 오면 어진 사람 만나 살 묘책이 있어

급히 사람을 보내니 어머니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주소.

그간 집안 유고를 몰라 기록하니 어머니 몸에 혹 유고 계시거든 옆 사람이라도 와야 하겠습니까.

부디부디 명심불망하옵고 즉시 오시기를 차망 복망하옵니다.

남은 말씀 무수하니 서로 만나 말하옵기로 그만 그치나이다.

1894년 12월 28일 달문 상서

의복 상하 벌, 보신 한 벌, 망건, 토시 한 벌, 주의 한 벌, 노자 2냥, 온 사람과 함께 가 과세를

편히 할 터이니 혹 기고가 있어 못 오면 옥동 가고골 한기수에게 의복 지어 보내소서.

문 네, 선생님. 어쨌거나 선생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족보와 백부님의 서책 등을 잘 보관하셔서 조부님이 남긴 옥중편지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10일 국가등록문화재 제825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 있는 인류의 유산으로 길이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유물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길이 남길 수 있게 한 장본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답 어쨌거나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학농민혁명을 내놓고 떼떽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참여했다는 사실을 쉬쉬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어두운 세월 때문에 옥중편지도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거잖아요? 생각하면 역장이 무너지고 가슴 아프지요. 조부님 때만해도 우리 집안은 잘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가 장독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서 가세가 기울었고, 고향에서 계속 살수가 없어서 인근으로 옮기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어쨌거나 이제는 우리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내놓고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차지요. 그래서 늙어서 몸은 힘들지만 가능하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엔가? 올해인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때 제 큰집 조카 승구가 무대에 올라가서 제 조부님 옥중편지를 낭독했잖아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한우회 님과 부인

이렇게 내놓고 우리 조상님들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감사하고 있어요.

문 네, 선생님. 빠뜨린 얘거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없어요(웃음)특별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없네요.

문 네, 선생님 몸도 편치 않으신데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내내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린이전시실 재개관

동학농민군이 남긴 비밀을 찾아라!

전시기획: 박아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사

2014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에 문을 연 어린이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2024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과 2023년 5월 24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185건(13,132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전시 콘셉트(concept)는 세계사적으로 인정받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담긴 소중한 가치를 ‘비밀’로 숨겨두고, 이 비밀을 어린이들이 직접 전시를 관람하면서 찾아보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 박물관 전시 동향 분석을 통해 패널 중심의 읽고 보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체험을 연계한 전시로 어린이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그 안에 깃든 이야기를 통해 혼자보다는 ‘함께’, 단절보다는 ‘소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시] 파트 1

모든 것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해요 - 공존

동학사상에 나타난 ‘경물(敬物), 사물을 공경하는 마음’의 정신을 전달한다. 21세기 초,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것 중의 하나가 급변하는 기후변화이다. 이는 근대 자본주의 물질문명이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바탕으로 발달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연 훼손은 기후 변화를 초래하였고, 기후변화는 건잡을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이어져 사람은 물론이고 지구 생명체 전체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파트1]에서는 사람과 자연을 하늘처럼 아끼고 존중했던 동학농민군의 생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모든 생명과 사물에 대한 존중이 공존의 기본 바탕임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전시] 파트 2

소통과 평등, 협동과 존중

1년여 동안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 이를 수행한 동학농민군의 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소통과 평등', '협동과 존중'의 정신이 자리잡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 집강소를 통해 펼쳐진 소통과 존중의 가치 실현 사례, 차별 폐지의 의지가 담긴 폐정개혁안, 모두를 평등하게 대했던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일화 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바탕이 된 소통과 평등, 협동과 존중이라는 뜻 깊은 가치를 어린이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전시] 파트 3

사람의 권리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한 핵심 가치의 하나로 '인권'을 들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부여받는다. 인권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 인권은 무자비하게 침해당했다. 왕조 시대였던 19세기 말 우리나라도 그러하였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다시 말하면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추구하였다. 오늘 우리가 인권이 보장된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가 수 있는 것은 바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희생 덕분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다.



조국(祖國) 캄보디아 독립기념일에 방문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visited on
Cambodia's Independence Day, my country.

모나(Mona)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2023. 11. 9.)

번역: 오진경(『녹두꽃』 편집자)

My name is Mona and I am of Cambodian nationality. I met my Korean husband in 2013, married him, and started our family in Cambodia before moving to Korea in 2017, where I have been living ever since.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Korean history, and recently I learned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rough my husband’s director, who is knowledgeable in Korean history. So, on November 9th, the independence day of my country, Cambodia, I visited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Although I am currently living in Korea after leaving my home country,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on Cambodia’s independence day, and I wanted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hich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Korean history.

Cambodia was a French colony and gained independence in 1953.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which I visited with my husband on the day of my country Cambodia’s independence from France, was very impressive. I am deeply moved by the sacrifices made by the Donghak Peasant Army who fought for the independence of their country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129 years ago. While looking around the memorial park where the Donghak Peasant Army lives, I became solemn as I realized the history of their fighting against the Japanese army by helping each other and relying on each other despite



저는 캄보디아 국적의 모나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 한국인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캄보디아에 살다가 2017년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한국사에 박식한 저의 남편의 상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조국 캄보디아 독립일인 11월 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제가 고국을 떠나 한국에 살고 있지만 조국 캄보디아 독립일에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1953년에 독립하였습니다. 저의 조국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해 남편과 함께 방문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조국의 자주를 위해 싸운 동학농민군들의 희생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숨결이 깃든 기념공원 곳곳을 둘러보면서 난관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가 의지하여 일본군과 싸운 역사를 접하면서 숙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difficult situations to free their country from social problems and foreign invasion. And I learned how important a righteous character is in a leader's leadership. This is because I thought th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ould not have been achieved without the people following their righteous and honest leaders, including General Jeon Bong-jun.

While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 thought about the history of my home country, Cambodia, which was a French colony and realized that we share many similarities. During World War II, from 1941 to 1945, Japan occupied Cambodia, which was still a French colony. After France's defeat in 1940, Japan took control of Cambodia and Indochina, leaving control of the French officials who controlled Cambodia as a colony. After World War II ended and Japan withdrew, Cambodian King Norodom Sinhaouk and his supporters led the Cambodian Revolution. This revolution was successful and Cambodia finally became independent from France in 1953.

This experience of colonial rule by imperialists made us Cambodians realize the importance of competent leaders and taught us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hich was aimed at independence, equality, and peace, we could see that leaders with solid beliefs and those who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있어서 의로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도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의롭고 정직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배우면서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어야 했던 저의 조국 캄보디아의 역사를 생각하였고, 참 유사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인 1941년부터 1945까지 일본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를 점령하였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패배한 후 캄보디아와 인도차이나를 점령한 일본이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관리들에게 관리권을 그대로 두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캄보디아를 장악하였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철수하였고, 캄보디아 노르돔 시하누(Norodom Sinhaouk) 왕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캄보디아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 혁명이 성공하여 마침내 1953년 캄보디아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경험은 우리 캄보디아 국민에게 유능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주와 평등, 평화를 지



followed them worked closely together. Although many people enthusiastically participated in the revolution under a great lead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defeated by the Japanese army. However, their righteous spirit continues to this day in which we live, and I think it is necessary.

This visit to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was great as it provided insights into Korea's revolutionary history, and I deeply moved by Donghak peasants who sacrificed themselves to build a stronger and more democratic Korea. I respect all the hero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spirit of sacrific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ill live for a long time not only in the hearts of the Korean people but also in mine!

향한 동학농민혁명 역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지도자와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아래 수많은 사람이 열성적으로 혁명에 참여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로운 정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은 한국의 동학농민혁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더 강하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희생한 동학농민군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모든 영웅께 존경을 표하며, 동학농민군들의 희생정신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서도 오래오래 살아 숨쉴 것입니다.

대학생 눈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저는 그동안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가 누구에 의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후대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해당 시기 권력자에 의해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가령 이성계가 고려를 전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인 위화도 회군 또한 최영에 의해 진압되었다면 '이성계의 난'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살펴보면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 중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하여 끝내 수도인 한양을 점령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후대에 '동학농민혁명'은 '반란', '민란' 등으로 기록되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동학농민혁명은 100주년을 전후하여 그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로,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시작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슴 뿌듯한 역사인식의 변화를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전시를 관람하면서 알 수 있어서 참 뜻깊었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해 전시해설을 들으면서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사회에서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앞서간 동학농민군의 활동상을 볼 수 있었고, 동학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폐정개혁을 단행했다는 사실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사회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이정표의 하나인 갑오개혁 또한 농민군들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의 내용이 다수 반영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알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의 기층 농민들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 중 하나였던 신분제를 철폐하였다는 사실, 이는 곧 신분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엎은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유민우 /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2023. 8. 방문>

혁명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 최초의 혁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접하게 되는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지금까지도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아직도 청소년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교과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에 답답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아가 지난 2023년 5월에는 185건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을 권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읍에 살고 있어서 가끔 일상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싶을 때 넓은 잔디와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완공되기 전에는 드넓은 벌판이었는데 지금은 공원 안에 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 시설과 상징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공원 곳곳에 나무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원입니다. 기념공원에 설치된 여러 기념시설물 중에서도 내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공원 중심에 있는 ‘울림의 기둥’이었습니다. 울림의 기둥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전국 90개의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이 조형물을 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념공원 안에 박물관, 조형물 등을 둘러본 후 저는 정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요즘은 제 또래 학생들은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둘러보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 나가야 할 소중한 역사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뻐고, 정읍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이서영 / 전주 예수대학교 간호학과
<2023. 8. 방문>

아름답게

‘4·19혁명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찾아서

일시 : 2023. 11. 15.(수)

장소 : 국립 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번 호부터 새롭게 시작된 연대기관 대담

[대한민국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을 찾아서] 코너

첫 번째 손님으로 재단법인 4·19혁명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조성구 사무총장을 모셨다.

문 총장님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19혁명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성구입니다. 저희 재단법인은 순수한 NGO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4대 민족·민주운동 (동학농민혁명, 3·1만세운동, 4·19민주혁명, 5·18민주화운동) 중에서 아직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3·1운동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재단법인 3·1운동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재단의 사무총장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 네, 총장님. 작년에 제주에서 개최되었던 ‘한국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협의회’ 워크숍에서 뵈고 이렇게 다시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함께 문화재청의 심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기록물 등재기관인 유네스코에서 자체적인 체제정비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5년이 경과한 후인 지난 5월 24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마침내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





조성구 사무총장

혁명기록물이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워크숍 때만 해도 아직 최종적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되지 않아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하루빨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어 두 기관이 함께 만세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격려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먼저 4·19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드리며, 등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총장님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 예, 말씀하신 대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저희 재단에서 준비하여 함께 제출했던 4·19혁명기록물이 오랜 시간과 우여곡절 끝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4·19혁명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과 4·19국립묘지에 안장되신 영령들에게 혁명에 참여하셨던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등재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던 것을 지킬 수 있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계승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올곧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함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문 우리 재단에서는 2015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만열)를 구성하여 8년 동안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 5월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동안 등재를 추진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4·19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재를 위해 활동해 온 내력에 대해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사단법인 '4·19혁명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하게 된 배경은 2011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는데, 당시 이를 주도한 김영진 국회의원(5선·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43개국 위원장)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본산인 4·19혁명 등재를 독립적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4·19혁명 관련 인사들에게 제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 4·19혁명 유네스코 등재 관련 단체장, 각 당 원내대표, 사회단체 주요 인사들과 설명회를 거쳐 2013년에 4·19혁명 유네스코 등재 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4·19혁명 기념도서관을 방문하여 관련 책, 영상, 사진, 일기 등 자료수집에 나섰습니다. 2015년도에는 학술 심포지엄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2017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국내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대로라면 2021년도에 등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유네스코 내부의 체제정비 등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 2023년에 최종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4·19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



해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여러 난관을 거쳐 2023년에 최종 등재되었으니까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4·19혁명 정신이 인정받아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재단에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여겨져 동지애가 느껴집니다.(웃음)

문 등재가 확정된 이후 우리 재단에서는 기록물이 지닌 한국사적 가치는 물론이고 세계사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고, 등재된 기록물(총 185종 13,132면)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온라인 등으로 관련 자료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 등을 구비한 ‘동학농민혁명기록관’ 건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19혁명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터인데, 이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예, 우선 많은 사람이 역사적 유산을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을 우선 사업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4·19혁명 정신을 계승해 나갈 세대에 대한 교육을 위한 세부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행하여 등재된 4·19혁명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의 시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94년 정월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일어난 동학농민군은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전투, 황룡전투 등을 거쳐 4월 27일(양력 5. 31.) 전라감영 소재지였던 전주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정부는 전주성의 ‘반란군’을 진압해달라고 청나라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고, 일본도 1883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텐진조약을 빌미로 조선에 군대를 보냅니다. 이렇듯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치정세가 격동하자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 측에 전주성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하였고, 동학농민군은 근대적인 폐정개혁안을 제시하여 이른바 전

주화약을 체결합니다. 이로써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비워주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조선정부는 청나라와 일본 측에 철병(撤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병하기는커녕 일본군은 1894년 7월 23일(음 6. 21.) 야밤에 경복궁을 무단점령하여 국왕을 인질로 잡고 국정을 농단하는 폭거를 자행합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이를 주시하던 동학농민군은 반일항전의 기치를 들고 다시 일어났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2차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칭합니다. 경복궁을 무단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부대를 맞아 전국 각 지역에서 수많은 전투를 벌였지만 무기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 수 있는 만민평등 세상을 추구하였고,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마감되었으나 그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은 대한제국시기 항일의병으로,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으로, 해방 이후에는 4·19혁명과 5·18광주민중화운동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나라 근현대 민족민주운동의 수원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인권의 효시임에 틀림없지요. 나아가 나라의 주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당한 권력에 맞선 상징적인 혁명입니다. 그 정신이 3·1운동과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외신에서도 칭찬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



지요. 잘 아시겠지만 4·19혁명은 부패한 이승만 정부의 장·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저항 시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저항 시위가 시민들의 저항으로 확산된 것은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버려진 김주열 군의 시체가 인양되면서 2차 마산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고려대 학생 시위였습니다. 4월 18일 3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고려대 시위가 있었고, 시위 후 귀교하는 학생들을 정치깡패들이 습격하여 다음 날인 4·19 때 시위가 크게 폭발하였습니다. 4월 19일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들과 일부 고등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대적으로 벌어진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항 시위는 4월 26일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교수단의 시위로까지 확장되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주정부(제2공화국)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된 민주 정부 하에서 부정선거 관련자 및 발포 책임자에 대한 재판, 과거청산, 그리고 4·19혁명 수습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겨진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4·19혁명기록물로 등재시켰던 것입니다.

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4·19혁명 기념사업회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특별법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자료관 건립 및 운영, 자료조사 및 학술연구사업, 유적지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9혁명 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우리 4·19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관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해나가면서 건립 장소 등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여 계승 세대 교육을 위하여 전국의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우리 재단의 상임고문단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명사 초청강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관련된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탐방은 해외에 거주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 해외교포 2·3세대들을 대상으로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득하게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역사 현장 탐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녹두꽃』 독자분들께 4·19혁명 발발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동학농민혁명이 농민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피지배계층인 백성들이 들고일어난 아래로부터 혁명이잖아요? 4·19혁명도 동학농민혁명과 마찬가지로입니다.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은 한국이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15년, 냉전이 빛은 한국전쟁 종료 이후 7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최빈국이자 분단국가였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아래로부터 혁명이 일어나 독재정권을 전복시켰습니다. 독재정권의 앞잡이 경찰의 발포로 무고한 학생과 시민 186명이 사망했고, 6,02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시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싸워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는 제3세계에서 일어난 최초의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인 동시에 유럽의 68혁명, 미국의 반전운동, 일본의 안보투쟁(전공투) 등 1960년대를 휩쓴 세계적인 학생저항운동에 영향을 준 대단히 중요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습니다.

문 역사상으로 불의에 맞서 저항하고 정의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름 모를 수많은 분의 희생이 치러진 것은 비단 동학농민혁명뿐 아니라 4·19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개는 많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20세기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면서 더욱이나 자료가 대부분 사라져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비하면 비교적 근년의 일이지만 4·19혁명 기록물도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답 네, 4·19혁명 관련 기록이 국가, 국회, 언론, 개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수집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4·19혁명 기록물은 1960년 2월 28일부터(2·28시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 이른바 4·19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물과 4·19혁명 성공 이후 수습 및 재판과정, 과거청산 과정에서 생산된 종합적인 기록물로서 시민혁명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인 기록을 그대로 보여주는 원본 기록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1960년 4월 19일 한국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시민혁명 자료입니다. 1960년 2·28 대구 학생시위부터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까지 그 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혁명 이후 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등 혁명의 전후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물인데 이 기록물이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재단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문 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고, 귀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각별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빠뜨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고맙습니다. 귀한 지면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4·19혁명의 조부님? 증조부님?(웃음) 격인 동학농민혁명에 대

해 대화할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4·19혁명은 민주주의가 꽃필 수 없는, 열악한 정치적 환경에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값진 일이었어요. 이는 4·19혁명으로부터 66년 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민주주의를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꼭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얘기해 줍니다. 그 시발점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은 후대들이 제대로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있었기에 3·1운동이 이뤄졌고, 비폭력 4·19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고귀한 역사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고 계승하는 데 한층 더 힘이 실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일에는 우리나라 민족민주운동의 고조부님 격인 동학농민혁명, 그 정신 선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념재단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관지이자 소식지인 『녹두꽃』에서 민족민주운동 관련 기관대담 코너로 <대한민국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을 찾아서>를 신설한 것에 대해 깊은 감명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너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각각의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좌담회 등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칠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4·19혁명 기념식 또는 동학농민혁명기념 행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술지 발간



『동학농민혁명 연구』(창간호)

2023년 4월 1일에 개소한 동학농민혁명연구소에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방향성 제시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연구』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창간호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일반논문(4편), 특집 논문(4편), 자료 소개(갑오일기 해제 및 영인본), 연구소 소식 등이 수록되었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에서는 향후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매년 2회 발간할 계획이다. 학술지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학, 민속학,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www.e-donghak.or.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자료집 발간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일본 자료 『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 『천우협(天佑俠)』, 『남정여록(南征餘錄)』,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 『일청교전록(日淸交戰錄)』, 『일청전쟁실기(日淸戰爭實記)』를 번역하고 이를 입력문과 함께 엮어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를 발간하였다.

『갑오조선내란시말』은 일본의 중국어 통역관인 니시지마 칸나미(西島函南, 1870~1923)가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중군하고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일본과 청의 관계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 『천우협』은 일본 정부의 배후 지원으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낭인집단인 ‘천우협’ 중 한 명인 요시쿠라 오세이(吉倉沆聖, 1868~1930)가 전봉준을 직접 만나서 동학농민군을 정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정여록』과 『동학당시찰일기』는 일본의 낭인인 우미우라 아쓰야(海浦篤弥, 1869~1924)가 동학농민군 활동 추적을 위한 답사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그는 1894년 7월 20일 전봉준과 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청교전록』은 1894년 8월과 10월 일본 도쿄 순요도(春陽堂)에서 발간한 것이며, 『일청전쟁실기』는 1894~1895년 일본 하쿠분칸(博文館)에서 발간한 것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상 및 청일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총서는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www.e-donghak.or.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홍재일기로 본 격동기 조선 사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



2023년 10월 26일 전북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부안군이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공동 주관으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신영우 소장의

「홍재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라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5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주제발표는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유바다 고려대 교수),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 조선 사회의 변동 양상」(조재곤 서강대 교수), 「홍재일기의 저자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 네트워크」(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홍재일기로 본 조선후기 지명 연구」(김병남 전북대 교수) 등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양식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왕현중(연세대 교수), 김철배(임실군청 학예연구사), 김희태(전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김경성(부안문화원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였다.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

2023년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대강당에서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내건 학술대회가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총 4편의 주제발표와 종합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19세기 고부지역 수리시설 현황과 만석보 수세 징수」(왕현중 연세대 교수), 「전라북도 기념물 「만석보지」의 위치 재지정 검토」(홍성덕 전주대 교수), 「만석보의 변천 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동학농민혁명 상징공간으로서 만석보 활용 방안」(박정민 전북대 교수) 등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신영우 소장을 좌장으로 김희태(전 전남문화재 위원), 이진주(현대문화재연구원장), 서인석(전 동학사업소 소장),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새로운 이해



2023년 11월 15일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의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현황과 과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지선 (고려대 대학원)의 「손화중도소 위치와 문화재적 가치」, 안후상 (노령역사문화연구원장)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 피체지 재고」,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선운사 미륵비기 탈취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이 발표되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신영우 소장을 좌장으로 정성미(원광대 교수), 유바다(고려대 교수), 김양식(청주대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2023년 11월 25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공연장에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신순철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군산」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활동과 성격」(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군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현황 및 활동 거점 연구」(김중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장) 등이 발표되었다. 종합토론에는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신영우 소장을 좌장으로 전병호(전북교회역사문화연구원장),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상호(군산문화원 원장), 신진희(안동대 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2023년 11월 29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 주제발표는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박형모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김양식 청주대 교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박물관 운영현황과 과제」(나윤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예연구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신영우 소장을 좌장으로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문영식(전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명예관장), 천진기(전 국립민속박물관장), 박석면(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여하였다.

고부농민봉기 재평가 및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



2023년 9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고부농민봉기 재평가 및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산하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신영우 소장의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농민봉기 재평가」라는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동희(예원대 교수)의 「19세기 고부군 행정구조와 향촌사회의 동향」, 조재곤(서강대 교수)의 「고부봉기 관련 일본측 자료분석」, 최윤오(연세대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부군 달천면 토지자료(行審) 분석과 고부민의 토지소유」, 조광환(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의 「사발통문 서명자와 고부봉기」, 원도연(원광대 교수)의 「일제의 고부군 폐지 의도와 관아 복원의 역사적 의의」 등이 발표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예천 서정자들 전투 기념비 제막식



2023년 10월 12일 경북 예천읍 서본리에서 '동학농민혁명 서정자들 기념비'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기념비가 세워진 이곳 서정자들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예천지역 동학농민군과 예천의 보수집강소 측 민보군·관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攻防戰)이 벌어졌던 곳이다. 뿌리예술단의 길놀이와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제막식은 경북일고 학생들의 합창, 축사, 추모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도의원, 전국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예천군민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하였다.

제4회 동학깃발문화제



2023년 10월 14일 충북 청주 꽃다리 장승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 129주년을 맞아 '제4회 동학깃발 문화제'가 열렸다.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 김양식)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청주교육대학교 학생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깃발 퍼포먼스와 시낭송 『서울로 가는 전봉준』, 『새야 새야 파랑새야』등으로 전개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김양식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은 “동학농민군이 있는 모든 곳에는 깃발이 있었다. 죽창도 아니고 화승총도 아닌 깃발은 혁명군의 마음이자 상징이다.”라며 깃발 문화제의 의미를 전했다.

제30회 우금티 추모 예술제



사진출처: 공주시

2023년 10월 28일 충남 공주시 반죽동에 서 있는 당간지주 앞에서 ‘공주, 동학의 깃발을 올리다’라는 주제로 제30회 우금티 추모 예술제가 열렸다. 충청남도도와 공주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선원)가 주관한 추모 예술제는 금강풍물패의 길놀이와 동학농민군 혼령을 모시는 지계상여 행렬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기념식과 추모 공연이 펼쳐졌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발통문 만들기, 숯대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철 공주시장,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정선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지역민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2023 원평집강소 등록개의 꿈



2023년 10월 28~29일 양일간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원평집강소에서 '2023 원평집강소 등록개의 꿈'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시, 놀이체험, 인문학 강의, 문화공연 등이 펼쳐졌다. 원평집강소는 1882년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등록개'라는 백정이 금구·원평 지역이 근거지였던 김덕명 대접주에게 '신분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헌납하여 동학농민군 집강소로 활용되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금산면 면사무소, 원불교 관련 시설로 사용되었고, 해방이후 개인 주택 등으로도 사용되다가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다. 2015년 현재의 모습으로 문을 연 원평집강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역사적 사실 규명 등을 통해 정비 및 복원 계획을 수립,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복원하였다. 이 집은 2017년 7월 7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2023 공주 동학농민혁명 한·일 국제학술토론회



2023년 10월 31일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소재 공주교육대학교 청목관에서 동학농민혁명 한·일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주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위상과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토론회는 박맹수(전 원광대총장)의 「동학농민혁명과 동아시아 평화」, 나카츠카 아키라(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의 「현대 일본의 역사 인식과 시민운동」이라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동학의 지구사적 의미」(조성한 원광대 교수), 「공주 우금티 전투와 일본군」, 「공주전투에서 '공주전쟁'으로」(이노우에 가츠오 일본 홋카이도대 교수), 「해월 최시형의 공주 동학 포교와 공주 접주 윤상오」(정선원 사단법인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나는 왜 여성동학 다규소설을 쓰게 되었나」(이상미 작가), 「공주 동학 유적지 보존과 기념사업」(윤여관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제33회 동학농민혁명군 추모 문화제



2023년 10월 29일 충남 태안군 백화산 자락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 앞에서 제33회 동학농민혁명군 추모 문화제가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문영식), 태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정용주) 공동주최로 열렸다. 추념식은 개식선언, 국민의례, 2023년 충남 동학농민혁명 학생 문예대회 시상식, 헌시 및 위령문 낭독, 기념사, 추모사, 유족 인사,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 윤여준 태안군 교육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전국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태안 군민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제129주년 기념행사



2023년 11월 4일 전북 완주군 삼례문화체육센터에서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 김정호) 주최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29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추모제례를 시작으로 기념식, 기념공연(완주군 생활문화예술 공연) 순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임원진과 완주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기렸다.

전북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제128주년 기념 및 추모 제례



2023년 12월 3일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전적비'에서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최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기념 및 추모 제례가 열렸다. 전라북도·완주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후원한 이날 추모제례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등산객 등이 함께하였다. 이곳은 공주 우금치전투(1894. 12.)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이 후퇴하면서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중 금산과 진산 지역의 동학농민군 중 일부 세력이 대둔산으로 입산(入山), 형제바위에 올라가 험준한 지형과 지세에 의지하여 숨어 있다가 1895년 2월 18일(양력)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소년 한 명을 제외한 25명이 모두 전사한 곳이다.

경남 하동군

제129주년 하동 고성산동학혁명군 위령식



2023년 11월 11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동학혁명군위령탑 앞에서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대표 정의적)에서 주최하고, 하동 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대표 강호경) 주관으로 제129주년 하동 고성산동학혁명군 위령식이 거행되었다. 제1부에는 국민의례, 동학농민군 폐정개혁안 낭독, 추념사, 추모가(追慕歌) 합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순천영호도회소와 하동 지역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의 역사 강연이 진행되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 강연회



2023년 11월 18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목천판 동경대전 간행 140주년을 기념하고, 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 도서관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와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천안역사문화연구회와 천안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하였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성산 위령비, 목천판 동경대전 및 용담유사 간행 터 등 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고, '목천판 동경대전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가 이어졌다. 강연회 종료 후 참가자 300여 명의 의지를 담아 '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 도서관 건립제안서'를 발표하였다.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을 위한 강연회



2023년 11월 23일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강당에서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무안군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최로 '동학농민혁명과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배상옥 대접주 생가(生家), 해주최씨 삼의사 실적비 등 무안 지역 유적지를 답사한 후 도올 김용옥 선생 강연회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하여 박석면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기념재단에서는 기념공원 생태탐방 <녹두 꿈>, 미션을 해결하는 역사탐방 <1894년, 녹두꽃의 기억>, 박물관 온라인교육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박물관 스스로 학습 <1894! 가보세 갑오세>, 기념관 프로그램 <1894 시간여행>, <녹두 꾸러미 탐험대>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부안 하서중학교 (2023. 8. 31.)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완주고등학교 (2023. 9. 2.)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고창 자유중학교 (2023. 9. 13)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담양 한빛고등학교 (2023. 9. 21.)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 소성중학교 (2023. 10. 4.)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 한솔초등학교 (2023. 10. 6.)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 정일중학교 (2023. 10. 11.)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제주 종달초등학교 (2023. 10. 19.)



기념공원 <녹두 꿈>
정읍 대건어린이집 (2023.9.22.)



기념공원 <녹두 꿈>
정읍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2023.9.26.)



기념공원 <녹두 꿈>
정읍 동화나라어린이집 (2023.10.16.)



기념공원 <녹두 꿈>
정읍 서초등학교 (2023.10.20.)



기념공원 <녹두 꿈>
부안 동초등학교 (2023.10.31.)



기념공원 <녹두 꿈>
정읍 태양어린이집 (2023.11.20.)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10.14.)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10.15.)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10.20.)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10.21.)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10.26.)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10.31.)



박물관 <한가위 특별 프로그램>

(2023.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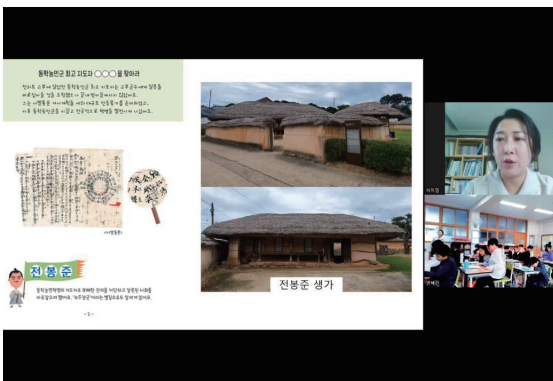
박물관 <한가위 특별 프로그램>

(2023.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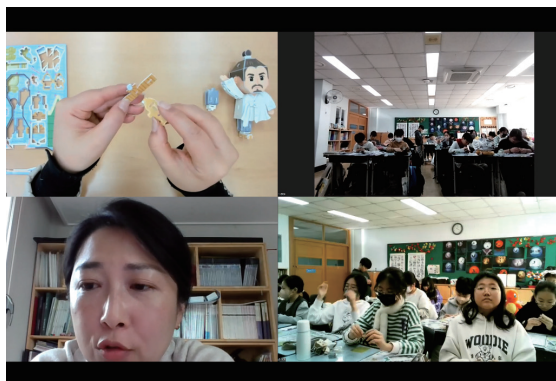
박물관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온라인)

서울 영등포초등학교 (2023.10.31.)



박물관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온라인)

서울 소의초등학교 (2023.11.24.)



기념관, 생생문화재 <녹두장군과 함께 하는 1박 2일>

(2023.9.9~10.)



기념관, 생생문화재 <꿈을 품은 박물관>

(2023.9.23.)



기념관, 생생문화재 <파랑새를 찾아서>

(2023.10.14.)



2024년 교육체험·해설 프로그램

박물관 / 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상설	1894! 가보세 갑오세	(전국)모든 대상	박물관	1~12월
온라인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전국)초등 4~6학년	온라인 (ZOOM)	3~11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나는 동학농민군	(국외) 한인 학교		
관내	녹두 꿈	유아 만5세 ~ 초등 6학년 / 단체	교육관, 기념공원, 전시관	4~11월
	1894년, 녹두꽃의 기억	초등 4학년~ 고등/ 단체		

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관외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국)초·중·고	해당 학교	3~12월
답사	1894 시간 여행	(전북)중·고등	기념관, 전북 유적지	6~11월
	녹두 꾸러기 탐험대	(전북)초등5·6학년		
교원직무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 보기	(전국)초·중등 교원		7~8월

해설 프로그램

구분	해설 내용	대상	일정
기념공원	기념공원 내 조형물, 생태해설 등	모든 대상 (단체)	상시
박물관	박물관 전시		
기념관	기념관 전시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1894.or.kr>)를 참고하세요. 문의: 063. 530. 9400